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기실 터이시다 (계17:14)

2025년 12월 28일 주일 강단

〈지난주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미션은 237나라 5000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2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를 말씀을 따라 왔고 그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갑니다. 새해 언약궤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계시록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기실 터입니다.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모두 이 어린 양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만주의 주는 모든 주인 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영적 권세, 통치자, 주권자 위에 있는 최고의 절대주권자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린 양 위에 설 수 없는 절대주권입니다.

▶만왕의 왕은 모든 왕 위의 왕입니다. 역사 속의 왕, 현재의 왕을 포함해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한 어떤 왕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기는 터는 승리가 보장되고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나 희망이 아니고 이미 미래의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한가지만 붙잡아도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모르게 오신다는 것,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주, 재림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분은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그 분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신부는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주만 참되시고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심판이 종결되는 그 날이 옵니다. 아직은 그 날은 아니지만 이 날이 도둑같이 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경계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야 합니다.

〈본론〉

1.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음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계17:1)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

과 백성을 상징하며 음녀가 그 위에 앉아서 그 백성을 쥐고 훙드는 모습입니다. 음녀는 음행하는 존재입니다. 이 음행은 영적 간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음녀는 영적 간음을 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계17:2)

그런데 땅에 사는 백성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문화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계17:3)

이 여자가 탄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한 짓들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계17:4)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꼭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내용은 가증한 존재입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가장한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곁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음녀의 모습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때로는 능력이나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계17:5)

이 음녀가 모든 거짓 종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어미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숨어있는 가증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2.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계17:6)

이 여자가 한 짓이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할 정도면 수없는 전도자들을 죽이고 팝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음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여자를 보면서 크게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계 17:7)

천사가 놀라는 요한에게 네가 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을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계17:8)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무저갱에 숨어 있다가 말세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반드시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자기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아, 우리를 속인 존재가 저 존재였구나, 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앓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계 17:9-11)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숨어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최종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계 17:12)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열 뿔은 열 명의 왕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 세상 신처럼 권세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무저갱에서 끌려나와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6년도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미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미 미래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모르고 답답해져서 가지 말고 보고 가야 합니다.

3.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자 그들을 이기실 터

▶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17:13-14)

이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다 연합 할지라도 심판을 결국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보이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짐승은 게임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의 소속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기는 터입니다.

▶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계17:15)

이 음녀의 영향력은 온 천하, 전세계입니다. 이 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237나라 5000종족은 다 음녀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계17:16)

놀랍게도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계17:17)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악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왜 저러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계17:18)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합니다. 이 음녀는 단일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음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반드시 와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에 이 말씀의 흐름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 만주의 주는 절대주권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통치자도, 주권자도 이 위에 설 수 없습니다.

▶ 만왕의 왕은 모든 왕 위의 왕이십니다. 역사속의 왕, 현대의 권력자를 포함해서 모든 왕 위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 우리는 그 승리의 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